

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24. 3. 15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24년 3월 15일

2. 회의방식 : 온-나라 PC영상회의

3. 출석위원

김 주 현 위 원 장

김 소 영 부위원장

김 용 재 위 원

이 복 현 위 원

유 재 훈 위 원

유 상 대 위 원

김 용 진 위 원

4. 회의경과

(14시 30분 개회)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1) 의결안건 심의

□ 의결안건 제52호 『엘비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』을
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○ (위원) 지난주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있었고 금융감독원장님께서
△△△△에 대한 신분제재와 회사에 대한 기관제재, 과태료가
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음. 그래서 이번 주에 안전검토
소위원회를 다시 열고 해당 과와 면밀히 검토했음. 당연히
□□□에 대한 신분제재는 해임권고에 있어서 아무 이견이
없었음. 과태료에 있어서도 금감원 원안대로 가되, 다만 확인
의무와 보고의무는 둘 다 '중과실'로 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이
맞음. 왜냐하면 일자가 거의 하루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
'중과실'로 가는 것이 맞고 동기도 '중'으로 같이 일치시키는
것이 맞다고 해서 약간 과태료가 감액된 것임.

○ (위원) 안전에 대해서 이견이 없음.

- (위원)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52호 안건과 관련하여 엘비자산운용(주)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검토소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. ‘임원 자격요건 확인 의무 미이행’과 ‘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’가 연계된 행위이며 일자가 근접한 상황에서는 앞선 ‘확인 의무 미이행’과 ‘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’를 동일하게 ‘중과실’로 보아 ‘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’의 위반동기를 ‘상’에서 ‘중’으로 감경하여 ‘임원 선임 관련 자격요건 적합 여부 공시의무 위반 및 허위 보고’ 건의 과태료 금액을 1,800만 원에서 1,44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.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.

-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

⇒ 수정* 의결함

*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(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)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24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

(14시 42분 폐회)